

매 화 향 기 그 옥 한 조 계 산 선 암 사

仙巖寺

통권4호 불기 이천오백오십구년 | 2015 04

선암사의 선지식



구례 화엄사 소장 백암 성총스님 가사 중 일월광수(日月光繡)

백암 성총 (栢庵 性聰 1631 - 1700)

백암 성총스님은 13세에 순창의 취암사(鷲岩寺)에 출가하여 30세부터 강사로 강단에 서서 경전을 가르쳤다. 특히 승주의 송광사(松廣寺)·선암사(仙巖寺)·별교의 징광사(澄光寺)·하동의 쌍계사(雙溪寺) 등을 왕래하면서 강석을 펴서 후학들을 계도하였고, 외전(外典)과 시문(詩文)에도 능통하여 당시의 명사들과도 빈번히 교류하였다. 성총스님이 숙종 18년(1692년) 선암사(仙巖寺)에서 화엄대법회(華嚴大法會)를 열자, 무려 1,700여 명의 대중이 운집하기도 했는데, 그 후 선암사(仙巖寺) 칠전(七殿)에서 주석(駐錫)하다가 송광사(松廣寺)를 거쳐 말년에 하동 쌍계사 신흥암(神興庵)에서 열반하였다. 진영은 따로 전하지 않고 승탑은 하동 칠불사에, 가사는 구례화엄사에 전한다. 저서로는 백암집(栢庵集)이 있으며 목판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있다.

매 화 향 기 그 읍 한 조 계 산

仙巖寺

선 암 사

www.선암사.org

월간 『仙巖寺』 불기2559년 통권 4호 2015년 03월 27일 발행

선암사의 선지식	백암 성총	2
주지스님 법문	삼보에 귀의합니다 - 법이란 무엇인가	4
조계산 편지	더불어 사는 지혜 -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8
선암사의 정보	보물 제1117호 대각암 승탑	10
이달의 풍경	春 晴 - 맑게 갠 봄날	12
기초교리 강좌	부처님의 생애(3) - 사문유관(四門遊觀)	
신도탐방	벽파 박찬희 거사	16
선암사 소식	3월 행사 및 4월 예정행사	20
신도회 소식	사랑방 이야기	22
선암사 안내	선암사 성지순례, 月刊 仙巖寺 정기구독	23



사진 진 우

발행일 2015년 03월 27일
 발행인 법원(法願)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편집장 김희철
 편집위원 진우 성궁 현광 허수길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전화번호 061) 725 - 5108
 F A X 061) 753 - 5108
 홈페이지 HTTP://www.선암사.org

표지설명 : 봄비에 젖은 향긋꽃
 매마른 계절에 촉촉이 봄비가 내렸다.
 산중만물이 싱그럽게 되살아난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 법이란 무엇인가 -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

오늘은 불, 법, 승 삼보 중에 법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불교는 신에게 구원을 바라거나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닫고 발견한 진리를 체득하고 스스로가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종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얼마나 실천하는가가 신행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세 가지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불교에서도 사회와 같이 '규칙, 규범'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제법무아'의 제법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진리'라는 의미의 법보가 있습니다.

법보는 경장, 율장, 논장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의 가르침을 경장이라 하고 승단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실천 덕목들을 율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장과 율장을 후대의 스님들이 알기 쉽게 풀어 놓은 것을 논장이라 하는데, 이 논장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한 스님들이 주석을 달고 연구를 해놓은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법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유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유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들 손오공이 주인공인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유기의 원전을 읽어보면

중국 당나라에 현장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인도의 옛 이름인 천축국에 불경을 구하기 위해 중국의 장안에서부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까지 가는 여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험한 여정에 현장법사를 호위하는 인물들이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입니다. 현장법사를 삼장법사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삼장법사의 삼장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 율, 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이에 능통한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기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고 가장먼저 3·7일(21)일 동안 설하신 경전이 화엄경인데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설하시다 보니 초심자가 이해하기에는 내용이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하신 경전은 아함경으로 제자와 신도들에게 직접 설하신 말씀이기에 초심자들이 이해하기에도 어렵지 않아 제가 꼭 권하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은 방등시에 설하신 경전으로 유마경, 승만경 등의 대승경전이며 실제 재가신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설하신 경전입니다. 그리고 반야시에 설한 반야경은 방대한 분량의 경전으로 부처님의 '공' 사상이 담겨있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를 법화열반시라 하는데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경전은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다섯 가지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80년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전달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의 스님들이 굉장한 지혜로웠습니다. 부처님이 입멸하시자마자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가섭 스님의 주도하에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3차 결집에 가서야 문자가 개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입멸하시고 3차 결집까지 문자가 없었던 약500년의 시간동안 스님들이 합송과 암송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전달되어왔던 것입니다. 이 스님들의 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경전들이 '여시아문(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으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시간에는 승보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 하십시오.

불기2559년 2월 정기법회 법문 중에서...㉞

더불어 사는 지혜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선암사 주지 법원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입니다.

저는 언제나 선암사 법당에 오르며 ‘어떻게 하면 복잡하게 뒤엉킨 선암사를 여법하고 원만하게 정상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원만한 해결을 발원합니다.

지금 우리 선암사는 많은 불자님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40여년의 분규를 끝내고자 지난 2011년도에 양 종단이 대승적 차원에서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분규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양 종단의 대표단이 모여 순천시가 관리했던 선암사의 재산을 인수하여 꼼꼼히 점검하고 그간의 문제점들을 살피보았습니다. 또 앞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물론 40여년 단절의 세월을 마감하고 마주 앉은 자리가 다소 어색하고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긴 만큼 끈기 있고 진중하게 사안을 살피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간에서는 조속한 타협을 요구하기도 하고 소송으로 결판을 내버리라고도 하는 등 말들이 많습니다. 선암사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지역 불교계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다며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평화적이고 원만한 해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협상 재개 요청은 조계종에서 묵살했다며 등기무효소송을 제기한 사항도 사실은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하반기에는 양종단의 수장인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와 우리 종단의 중앙총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로 인하여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대한불교조계종 제16대 총회가 개원하고 나서 바로 이어진 2015년 3월 임시회의에서 선암사 문제해결을 위하여 선암사 특별위원회를 9명이나 되는 인원으로 구성한 것만으로도 우리 측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저는 태고종축이 제기한 소송은 우리 측에 대한 신뢰부족과 조급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나 협상은 상호간의 신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주장과 내 주장의 수용이외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자세는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때 상호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되어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암사가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절집에서 부처님 모시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목표로 살아오는 우리 출가 수행자들에게 그 어떠한 사심이 있을 수 없겠습니까? 그 저 우리 선암사가 부처님 법에 따라 부처님 법답게 살아가는 수행도량이 되기를 바랄 뿐이지요.

앞으로 양 종단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양 당사가 서로가 선암사의 삼보정재와 소중한 성보를 잘 관리하여 보전하고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서로를 비방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동산의 문제로 사찰의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살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비단 선암사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불교도들은 종단이 다르고 종지종풍이 다르다 해서 반목하고 분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법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선암사의 정상화는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종도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이 수승한 불사를 원만하고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산 자락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합장 ☺

선암사의 중창주를 모시었으리...

- 보물 제1117호 대각암 승탑 -



이 승탑(僧塔)은 대각국사 의천스님께서 선암사에 딸린 암자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대각암이란 암자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대각암 승탑이라 불리며 사중에서는 서부도 또는 서승탑이라고도 한다.

전형적인 8각 승탑으로, 3개의 받침돌로 이루어진 기단(基壇)위에 탑신(塔身)을 올린 후 머리장식을 얹어 놓았다. 기단에서 아래받침돌은 옆면에 구름무늬를 새겨놓았고, 가운데받침돌은 각 면에 1구씩 안상(眼象)을 얹게 새겼다.

윗 받침돌에는 8장의 연꽃잎이 둘러져 있다. 탑신의 몸돌은 각 모서리마다 기둥을 본떠 새겼으며, 앞뒷면에 자물쇠가 달린 문짝모양을 새겨 두었다. 지붕돌은 평평하고 투박한 모습으로, 경사진 면의 모서리는 굽적하고, 그 끝마다 큼직하게 솟은 꽃장식이 달려 있다.

꼭대기의 머리장식으로는 보륜(寶輪:바퀴모양의 장식)과 보주(寶珠:연꽃봉오리모양의 장식) 등이 차례로 올려져 있다.



승탑의 주인을 기록한 명문이 보이지 않아 주인을 알 수 없으나 사중에서는 선암사의 중창주인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승탑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조각수법과 지붕돌 형태 등으로 보아 고려 전기의 작품으로 보인다. ☺



春晴 맑게 갠 봄날

遠岫收微雨 먼 산 가랑비 그치고
高窓引細風 높은 창에 가는 바람 불어오네
小眠仍隱几 상에 기대어 잠깐 조니
殘夢鳥聲中 남은 꿈은 새소리 안에 있네

栢庵性聰 백암성총

부처님의 생애(3)

사문유관(四門遊觀)

- 생로병사의 실상을 보시다 -

편집실



비람강생상
증심사 대웅전
일화 정경문 作

싯다르타 태자는 왕궁의 풍요 속에서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랐다. 7세가 되자 태자는 학문과 무예를 익히기 시작하여 곧 모든 학문과 무예를 통달하여 더 이상 그를 가르칠 만한 스승이 없게 되었다. 아버지 정반왕은 그를 극진히 생각하여 계절에 따라 생활하도록 궁전을 세 곳(三時殿)이나 지어주는 등 온갖 호사 속에 성장하게 하

였다. 그러나 도성 출입만은 언제나 금지시켰다. 태자가 현실세계의 고통을 모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12세 되던 어느 봄날 태자는 부왕과 함께 농경제에 참석하였다.

그때 태자는 농경제에 참가한 농부들의 마르고 고단한 모습과 쟁기를 끄는 소들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 또

한 쟁기가 지나간 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를 새가 날아와 부리로 쪼아 먹는 광경을 보았다.

“농부는 낡은 옷을 입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소는 농부의 채찍을 맞으며 힘들게 밭갈이를 하고, 쟁기에 의해 흙 밖으로 나온 벌레는 새들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이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사는 것이 과연 이 세상의 올바른 질서인가?”

약육강식의 세상을 직접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싯다르타 태자는 염부나무 밑에서 그 고통의 해결을 찾기 위한 깊은 명상에 잠겼다. 이 때 태자는 초선(初禪)의 경지에 들었다고 한다. 태자가 자비심으로 세상을 고통 속에서 구원할 길을 찾아 선정에 들었을 때, 이를 지켜 본 정반왕은 아시타 선인의 “출가하여 수행하면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떠올리며 오히려 태자를 세상과 더욱 멀어지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더욱 생활을 즐겁고 호화스럽게 보살피서 출가의 길을 미연에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태자의 가슴속에 자리한 고뇌는 깊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성년이 되니 태자는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기 위해 부왕 몰래 성문 밖으로 유람을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동문, 남문, 서문에서 각각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보게 된 것이다. 경전은 그 때의 심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났다가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고 마는 것.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

고. 아버님도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아아, 인생은 허무하고 괴로운 것이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수렁이 앞에 막아 서 있다.”

생명을 가지 어떤 것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번민하던 싯다르타 태자는 다음 날 복문으로 나갔다가 출가 수행자를 발견했다. 수행자의 얼굴은 여유 있고 평화스럽게 보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색으로 지혜가 담겨 있었다. 싯다르타 태자는 수레를 멈추었다.

“그대는 누구시오. 무엇하는 사람이요. 나는 당신처럼 평화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소.”

“예. 저는 출가 사문입니다. 사문이란 가정을 떠나 세상의 잡된 일을 모두 잊고 오직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를 찾아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왕궁의 영화와 권세, 향락과 사치 그리고 어떤 학문과 종교에서도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지 못했던 태자는 출가 수행자에게서 그 길을 찾았던 것이다. 이것을 사문유관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환희에 찬 태자는 그 후부터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사유를 하기 시작하였다. ☹

불혹, 그 새로운 시작

벽파 박찬희 기사

편집실



숙부가 스님이시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던 불교.

늘 접하면서도 그저 때 되면 한 번씩 가는 곳이 절이었던 사람.

우연한 계기로 불교 관련된 일을 하면서 다시 찾아온 불문과의 인연.

그리고 새롭게 불교에 빠져드는 사람.

불교에 빠져드는 나이?

현재 전남 화순에 거주하면서 매주 신도 기본교육과 법회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열혈신도 벽파 박찬희 불자.

박찬희 신도는 불교가 가정신앙인 집에서 자연스레 불교와 인연이 되었지만 지난 2010년도부터 광주의 전시기획 전문회사에서 본부장을 역임하면서 추진한 불교박람회를 계기로 불교와 연을 다시 맺게 되었다. 막막했던 불교가 생활과 직접 닿게 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법정스님 열반으로 세인들에게도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던 때라서 불교박람회는 매우 의미 있었던 행사였다.

이후 자리를 옮겨 IT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소 소원했던 불교와의 연은 선암사와 만나면서 다시 이어졌다.

법회와 신도기본교육을 통해 불교의 기본을 되새기며 최근 불교공부 하는 재미에 빠져버렸다고 한다.

장거리 출장으로 두 시간 밖에 눈을 붙이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3월 14일 신춘법회에서 카메라로 사진촬영 봉사를 하며 조계산을 함께 넘을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불자이기도 하다.

불혹이 넘어 듣는 불교교리가 너무 재미 있다는 그는 화기에애한 선암사 신도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한다.

‘날마다 새로운 날!!!’

처음엔 선암사에서 신행활동을 할 계획은 고사하고 선암사에 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연하게 지난 가을 순천역에서 중무실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선암사와 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중무실장님은 전에 송광사에 있을 때부터 불교박람회 준비관개로 자주 만났었고 그 인연으로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죠. 늘 안부가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만나게 되니 연이 그냥 스쳐갈 연은 아닌가보다 싶었죠.

사실 제 작은 아버님이 스님이세요. 그러다 보니 불교가 너무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최근 선암사 법회를 다니며 그 자연스러움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어요.

뭐랄까, 마치 불교를 새로 접하는 느낌? 막연히 다녔던 절에서 차근차근 기본 교리를 공부하면서 절에 다니다 보니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매 법회 때 마다 보이는 게 새롭고 새록새록 합니다.

또 저는 우리 신도회는 평균 연령이 40대다 보니 활기차고 왕성해서 좋습니다. 법회 전후에 다른 신도님들과 차 한 잔 하며 이야기 나누는 게 즐겁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먼 거리지만 법회나 행사 때 빠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달을 기다려 만나는 좋은 인연들인데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올 봄은 이래저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이 연을 맺은 도반들과의 즐거운 활동이 시작되었는가 하면 개인적인 취미활동으로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업도 새로 시작하고...

지난번 입춘 때 주지스님께서 나눠주신 ‘입춘대길’ 스티커를 문 앞에 붙여 두면서

이래저래 즐겁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새롭고 활기찬 기운이 잘 이어져서 개인적으로도 또 선암사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로 시작한 사업은 농업과 유통에 연관된 것인데 낱일이 어려워져 가는 지역의 농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농가나 조합들과 연계하여 새로운 작물이나 시설 등을 통해 기존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으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판로 개척에 있어서도 납품, 직판, 온라인 장터 등 농민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제 새로운 시도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항상 큰 용기와 결심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새로운 삶을 위해 도전장을 내던진 박찬희 불자는 역시 법명다운 삶을 살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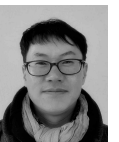
불혹의 나이에 새롭게 접하는 불교가 매력 있다는 그는 진정한 불교의 묘미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한다.

2015년 새봄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해본다.



벽파 박찬희

주 한국 생명분석 연구소 대표



- 3월 소식 -

01. 1기 신도기본교육 수료식 및 법계 품서식 봉행 및 2기 신도기본교육 입제식 봉행

지난 3월7일 KTX 순천역 강당에서 제1기 선암사 신도 기본교육 수료식 및 품서식이 봉행되었습니다. 이날 신도입원진 5명이 행도품계를 수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기 신도 기본교육 입제식도 봉행 되었습니다.



02.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교구중회 참석

지난 3월2일 제6교구 마곡사를 시작으로 제21교구 송광사, 직할교구 교구중회에 주지스님께서 직접 참석하여 선암사의 현황에 대해 말씀하시고 정상화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활발하게 각 교구를 돌며 선암사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03. 선암사 불자가족 신춘법회 봉행

지난 3월14일 조계산 일원에서 신춘법회로 기획 된 불자가족 등반법회가 봉행 되었습니다. 주지스님 법문인 '넘어지지 않기보다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새기며 신도 상호간에, 또 가족간에 친목을 다지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04. 성지순례 선암사 방문

지난 3월에도 부천 보륜사, 안성 서용사, 경기 봉인사, 부산 관룡사, 통도사 정법회관 등 여러 지역사찰에서 선암사로 성지순례를 다녀갔습니다. 미리 연락주시면 원만하고 뜻 깊은 성지순례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5.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차세대 팀 방문

지난 3월 24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2015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개최와 관련하여 후보지로 오른 선암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세계 20여국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워크캠프는 참가자들과 지역사회 청년 및 청소년들의 활발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4월 예정일정 안내 -

01. 호남 6본사 협회의 참석 예정

오는 4월1일(수) 제18교구 백양사 주최로 영광에서 호남6본사 협의회가 개최 될 예정입니다. 백양사, 금산사, 대흥사, 송광사, 화엄사, 선운사 주지스님이 결집하여 지역사회 및 종단의 여러 안건들에 대한 협의와 함께 선암사 정상화와 관련된 협의 및 논의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02. 신도기본교육 수료 및 수계 법회 예정

오는 4월25일(토) 6주간 진행되었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제2기 신도기본교육이 끝이 납니다. 이 날은 교육 수료식과 함께 행도품계 품서식 및 정기법회가 진행 될 예정이오니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하여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03. 선암사 성지순례 방문 예정

길상사, 대구교사불자회, 청양농협 등 다양한 곳에서 저희 선암사로 성지순례 방문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청매화, 홍매화가 만개하고 벚꽃이 피는 4월에 선암사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봄의 기운을 가득 담고 가시는 순례길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04.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 항소심 속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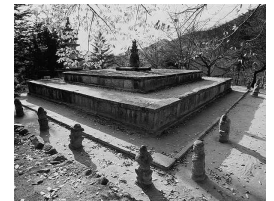
지난 1월 14일에 선고예정이었던 차 체험관 관련 항소제판이 재판부 변경 등으로 한 차례 연기되어졌습니다. 3월과 4월의 두 차례 변론을 끝으로 오는 4월 22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불기 2559년 4월 수계법회 안내

오는 4월 25일 토요일에는 신도기본교육을 마치신 신도님들이 5계를 수지하는 수계법회로 봉행됩니다.
기존에 수계하신 신도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새 봄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불기 2559년 4월 수계법회

일 시 불기 2559(2015)년 4월 25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선암사 차 체험관 강당
대 상 선암사 신도 및 가족, 지인 누구나
동참금 1만원



- 사랑방 이야기 -

01. 안태기 신도 세계 무차선대회 증책수행

광주대학교 교수인 안태기신도가 올 5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봉행되는 세계무차선대회 및 고승 수계법회 봉행위원회에서 국장으로서 중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안태기 신도는 지난 2012년 여수 엑스포 기간에 봉행된 세계불교도 대회와 고승수계법회를 성공적으로 기획, 운영한 바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번 법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만회향을 기원합니다.

02. 박병열, 백종성, 김성춘, 김희철 신도 팀티칭으로 '우리동네 건축학교' 개강

작년 가을에 이어 올 봄에도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패 없는 내집 짓기, 우리동네 건축학교'가 개강되었습니다. 정원 30명 모집이 초과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내 집 짓기에 대한 인문교양강좌인 우리 동네 건축학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03. 3월 새신도 등록

선암사 2기 신도 기본교육을 계기로 새로운 신도님들께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신규로 등록신청하신 김숙희, 허영아, 이진숙, 김선란, 김미정, 백종성, 조형익 신도님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도반들과 함께 좋은 인연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01



02



03

불교신문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불교신문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신문으로 매주 2회 찾아와 교계와 중단의 바른 소식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사입니다. 독자님의 말씀으로 불교신문과의 인연이 비롯되고 또, 오래도록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 주 2회 발행(월 8회 / 주요일, 토요일)
- 구독료 : 월5,000원
- 구독문의 : 불교신문 전남지사 / 062-384-0204
- 혜택 : 불교신문을 구독해주신 분께는 매일아침 행복명상말씀을 제공합니다.



- 선암사 성지순례 안내 -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선암사는 우리나라 전통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선암사를 참배하시고 무량한 복덕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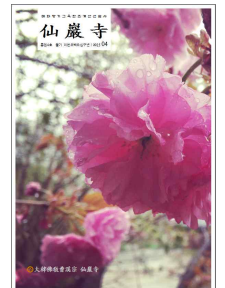
- 문의처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종무소
- 주소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죽학리 802)
- 전화/팩스 : 061-725-5108 / 061-753-5108
- 전자메일 : tnrff14@hanmail.net

- 월간 『仙巖寺』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월간 『선암사』가 정기구독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일 가정과 직장에서 월간 『선암사』를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문의 월간 선암사 편집실
전화 : 061-725-5108 / 팩스 : 061-753-5108

계좌 농협 301-0128-6618-31 /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구독료 3만원/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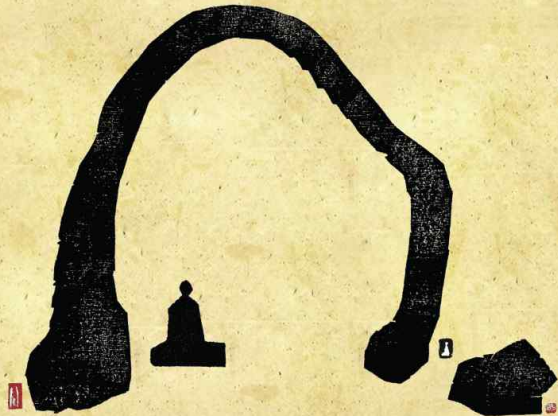
|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불기 2559



2015. 5. 16

오후 6시~9시 / 광화문



주최_  대한불교조계종

주관_  세계평화 기원대회 봉행위원회  연등회보존위원회

후원_  문화체육관광부  대한한국불교종단협의회